

國際法分科討議

司會 裴 載 湜*

司會를 보신 裴載湜 教授는 次期の 國際法 思想은 民族主義的 色彩가 强하게 될 것으로 展望하면서, 우리나라의 國家利益을 위한 觀點에서 앞으로의 國際法이 研究되어야 한다는 盧明濬 教授의 課題에 대한 討議에 들어갔다.

먼저 明知大의 張孝相 教授는 盧教授가 經濟法 分野를 强調한 데 同意하고, 一方當事者를 國家로 하고 他方當事者를 外國企業으로 하는 「國家契約」에 관한 問題가 우리나라의 中東進出・大陸棚資源探査 등의 現實에 매우 重要한 領域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法技術的・法政策的 次元의 具體的 知悉를 提供해야 할 國際法 分野의 實際의이고도 Academic한 兩面的 努力이 必要함을 强調했다.

建國大의 曹圭甲 教授는 國際法 發展을 古典國際法・近代國際法・現代國際法으로 段階를 나누는 다음, 現代國際法은 平和國際法으로서 이 時期에 東西對立과 南北對立의 問題가 있는데, 前者는 거의 解消가 되어가고 있으나 後者는 아직도 커다란 問題이며, 우리의 立場에서는 戰爭法 특히 韓國의 休戰法의 問題가 主要課題가 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 밖에 U.N.의 變質問題와, 價値의 多元化로 인한 後進國의 「主權」主張과 強大國의 「國際連帶」主張間의 調整問題가 우리나라의 特殊한 地位에서 重要한 課題가 됨을 밝혔다.

慶北大 金文達 教授는 大學講義에 있어서 判例集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經濟水域 宣布時期・韓日大陸棚協定 妥結時期 등에 관한 質問을 했다.

이에 盧明濬 教授는 海洋法에 관한 우리나라의 立場이 「資源保護」와 「遠洋漁業」이런 相反되는 利害關係 때문에 強大國과 新生國의 어느 便에도 加擔키 어려운 미묘한 狀況이라고 하면서, 굳이 擇하라면 前者가 優先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 朝鮮大 金榮圭 教授는 國際法學界에 있어서의 情報交換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研究基金의 마련에 관한 方案 또는 展望에 관해 質問하였다.

이러한 討議를 거치고 나서 司會者인 裴載湜 教授는, 韓國의 國際法學이 짧은 歷史와 많은 負擔을 안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이 當面한 여러가지 問題中에서도 가장 優先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問題들을 다루는 分野인 만큼, 그에 대한 투철한 問題意識을 갖고 많은 學者들의 共同研究를 통해서만이 풍부하고 알찬 國際法學의 發展을 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討議를 끝맺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